

메시지 5

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
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들, 그분의 용기(容器)들로 만드심

성경: 렘 18:1-10, 사 64:8, 롬 9:15-16, 19-23, 행 9:15, 고후 4:6-7

- I.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토기인 우리에게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다.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— 렘 18:1-10, 사 64:8, 단 4:3, 34-35, 롬 9:19-23.
- A.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가리킨다 — 계 4:11, 5:13.
1. 주권을 지닌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, 모든 것 배후에 계시며, 모든 것 안에 계신다 — 왕상 22:19.
 2.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신다 — 단 4:34-35, 엡 1:4-5, 9-11.
- B.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한다.
1. “...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?”라고 말할지 모릅니다.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?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,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” — 롬 9:19하-20.
 - a.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.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,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— 사 42:5.
 - b.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저항하거나 창조주이신 그분께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 — 롬 9:20.
 2. “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,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?” — 롬 9:21.
 - a.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시고,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.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다 — 렘 18:1-6, 사 64:8.
 - b.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다. 우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.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다면,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,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 — 렘 18:6, 사 29:16, 64:8, 롬 9:21.
- C.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이다.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 — 롬 9:11, 18, 11:5, 28.
- II.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들로,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다 — 고후 4:6-7, 엡 4:6, 3:19하, 빌 2:13, 히 13:20-21, 딤후 2:20-21, 엡 1:5, 11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5 (계속)

- A.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분의 그릇, 그분의 토기 용기로 사람을 만드심으로써,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 — 창 2:7, 행 9:15, 롬 9:21, 23, 고후 4:7.
- B.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간단히 말해서 다음과 같다. 하나님은 바로 내용이시고,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 용기이다.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. 그럴 때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,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,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수 있다 — 딤후 2:20-21.
- C. 우리가 하나님을 담지 않고 우리의 내용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,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모순덩어리이다 — 전 1:2-3, 14.
- D. 바울의 열네 서신서 전체는 두 단어, 즉 ‘열린 그릇’으로 요약될 수 있다.
 - 1.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열려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.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어 두기만을 원하신다 — 왕하 4:1-7, 마 5:3, 요 1:16, 사 57:15, 66:1-2.
 - 2. 쇠되는 자기만족에서 시작하고, 진보는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시작한다 — 신 4:25, 눅 1:53, 빌 1:25, 계 3:16-18.

Ⅲ.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로서,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공훈의 그릇들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신다 — 롬 9:11, 18, 21-24.

- A.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훈에 따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. 하나님의 공훈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이며, 이 공훈으로 인해 우리는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받는다 — 엡 2:1-4, 히 4:16, 마 5:7, 7:1, 9:13.
 - 1. 우리의 타고난 상태에 따르면,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,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다. 우리는 다만 그분의 공훈을 받기에만 적합하였다 — 엡 2:4.
 - 2.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공훈에 기회를 주며, 하나님의 공훈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 — 롬 11:32.
 - 3. 우리는 공훈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담도록 공훈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— 롬 9:11-13, 16, 20-21, 23, 애 3:21-24, 눅 1:78-79.
 - 4. 하나님의 공훈 때문에,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였고,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며,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고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취했다 — 영한 동변 찬송가 296장(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34장) 3절.

메시지 5 (계속)

- B. “내가 공홀히 여길 사람을 공홀히 여기고 ...’. ...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.” — 롬 9:15상-16.
1.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그 획득하기 원하는 것을 얻고, 달음질하는 사람이 그 쫓아가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— 롬 9:16.
 - a.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될 것이다.
 - b.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. 우리는 원하거나 달음질할 필요가 없는데,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홀히 여기시기 때문이다.
 - c. 우리가 하나님의 공홀을 안다면,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다. 우리의 가련한 상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홀에 소망을 둔다 — 엡 2:4.
 2.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,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홀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— 롬 9:15-16, 히 4:16.
 - a.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,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공홀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분의 공홀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— 롬 9:15.
 - b. ‘주권적인 공홀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. 공홀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다 — 롬 9:18.
 - c.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,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공홀을 베푸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— 롬 9:15-16, 23.
 3.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홀로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로 기울어진다. 우리에게 임한 그분의 공홀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 그분을 추구한다 — 렘 29:12-13, 신 4:29, 사 55:6, 시 27:8, 105:4, 119:2, 히 11:6.
 4. 우리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홀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,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질 것이다.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여 책임을 짊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공홀에 속한 것이다.
 5.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과 관련해서, 공홀히 여기실 사람을 공홀히 여기신다.
- C. 로마서 9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홀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계시해 준다 — 롬 9:15-16.
1.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,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홀에 속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— 롬 9:16, 23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5 (계속)

2. 우리가 하나님의 공활을 보고 명확하게 그분의 공활을 만지는 때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— 엡 2:4, 마 9:13.
 - a.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눈이 적어도 한 번은 열려야 한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때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.
 - b.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에 보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 깨닫든지, 이 문제를 만지자마자 우리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만지게 된다. 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.
- D. “그러므로 우리가 공활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.” — 히 4:16, 비교 히 4:15, 눅 15:20-24.
- E.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공활히 여기셨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공활에 대해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.
 1. “공활 누리 영원토록 낡지 않고 새롭네 / 적셔지는 이슬처럼 매일 아침 임하네 / 이 얼마나 달콤한가 주의 공활 찬양해 / 그의 공활 찬양해” — 영한 동변 찬송가 26장(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2장) 5절.
 2. “우린 이미 아버지의 공활 은혜 사랑 맛봐 / 공활엔 주의 임재 주 얼굴빛 담기어 있네 / 주 공활 인해 아버지 경배하네 / 주 공활 인해 영영 찬송하겠네” — 영한 동변 찬송가 25장(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3장) 3절.
- F.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도록(삿 9:9), 귀하게 쓰일 공활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(딤후 2:20-21, 롬 9:21).
 1.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기인한 것이다 — 롬 9:21.
 2. 믿는 이들은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보배로 담은 귀하게 쓰일 그릇이다 — 고후 4:6-7.
 3. 믿는 이들은 천하게 쓰일 그릇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된다 — 딤후 2:20-21.
 4. 귀하게 쓰일 그릇들은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함으로(갈 5:16, 25)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, 그 영을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(고후 3:6, 8)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이들이다.
- G.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담도록, 영광에 이르는 공활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.
 1. 영광은 표현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다 — 렘 2:11, 행 7:2, 엡 1:17, 고전 2:8, 벧전 4:14, 골 2:9, 시 24:7-10.

메시지 5 (계속)

2. 주님은 아버지께 “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,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.”(요 17:4)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.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를 나타내고 표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.
3.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는 것(눅 12:49-50)은 그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(행 3:13) 신성한 영광으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었다(요 12:23-24).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 안에서, 그분의 신성한 분배를 위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(요 7:39, 눅 24:26, 46, 고전 15:45하, 고후 3:6).
4.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공훈의 그릇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다 — 롬 8:21, 23, 29-30, 빌 3:21.
5.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으며, 심지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— 사 43:7, 롬 9:23.
 - a.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분의 용기들로 미리 정해졌는데,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표현과 나타남을 위한 것이다.
 - b.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유용성의 절정, 곧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이다 — 롬 9:11, 18.
 - c.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봉사의 목표이다 — 롬 7:6, 11:36.
 - d.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— 고전 6:20, 10:31, 롬 6:4.
 - e.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,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신다.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된다.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— 엡 3:16, 20-21.
6. 질그릇인 우리 속에는 이 보배, 곧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(고후 4:7). 우리 안에 거하는 ‘이 보배’(7절)는 ‘예수 그리스도의 얼굴’(6절), 그리스도의 임재, ‘그리스도의 인격’(2:10)이다.
7.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,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이신 주 영을 바라보게 되며, ‘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된다’ — 고후 3:16-18, 비교 딤후 4:22.
8.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.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— 사 60:1, 5.